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롬 12:15

415

2019.10.20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
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
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_ 신명기 16:14

오늘의 주요기사

2면	성명서
3면	성서칼럼 돌부리
4면	향존직 선거 소식
5면	섬김과 나눔 소식
6면	아름다운 부모학교
7-8면	비전트립 보고서
10면	목회칼럼
11면	향존직 피택자 소개
12면	아기나들이 / 알립니다

교회일정

10/20(주일) 추수감사주일
10/27(주일) 종교개혁주일, 교사대학
11/3(주일) 성찬주일, 교사대학
11/6(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11/10(주일) 정기당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오늘은 추수감사절, 구약시대 맥추절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근대의 명절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난 1621년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이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올린 축제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사랑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 또한 하나님 주신 한 삶을 사는 소중한 책무이겠다. 자녀축복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어린이, 눈 감고 고개숙여 기도하는 작은 손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혼란한 세상에 교회와 세상의 가치를 혼동하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할 뿐.

함즐함울

성명서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9년 9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의를 하였다. 총회에서 반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주님의교회로서는 하나님 앞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주님의교회 전 교인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배경과 취지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한 이번 총회의 의결은 지난 2013년 스스로 제정했던 세습방지법을 사문화시키는 퇴행적 조치일 뿐 아니라, 교회 세습이 교회법이나 세습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보편적 신앙과 건전한 상식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고질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다. 교계 안팎의 많은 인사가 이번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단체와 개인이 많음을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교회의 세습은 그동안 한국 개신교가 어렵게 쌓아온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력과 사회적 신뢰도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교계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도가 늘어나게 하며, 특히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기독교인의 믿음과 기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명성교회의 세습은 국내외 선교와 복음 전도에도 커다란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어느 일가의 기업(企業)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基業)이기 때문에, 교회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절취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어느 목사 일가의 재산이 아니다. 목사의 임기제를 제도화하고 교회당을 소유하지 않으며, 선교와 구제를 위한 대외지출 50%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성도가 섬기는 것은 목사를 비롯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을 실천하려는 몸부림에 대한 일반 교인들의 기대감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제 명성교회 세습은 개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총회와 교계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사회적 관심사로까지 비화되었다. 그런 면에서 작금의 사태는 지난 날 권력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뼈아픈 과거의 회한을 떠오르게 한다. 이 시점에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특정 교회나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세습이라는 불의한 상황에 직면하여 예기치 않은 시험에 빠지는 교회를 향한 신실한 교인들의 간절한 우려와 호소를 표시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의 입장

1. 최근 교단 총회에서 있었던 명성교회 관련 의결은 보편적 신앙과 건전한 상식에 반하여 사실상 세습을 허용한 잘못된 결의이다.
2. 교회 세습은 사회에 대한 한국 교계의 지도력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3. 이 사태를 계기로 교단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요인이 되어, 선교와 복음 전도에 막대한 장애가 될 것을 깊이 우려한다.
4. 하나님의 기업을 사유화하는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것을 절취하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음을 천명한다.
5. 이 모든 이유로,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교회의 역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9. 10. 20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교회 장로 일동

성서칼럼 돌부리

강물이 피로 변할 때

출애굽기 7:14~12:36

구스타프 말러(1860~1911)는 자신의 아홉 번째 교향곡에 번호를 붙이지 않고, 다만 <대지의 노래(Das Lied von der Erde)>라는 이름을 붙인다. <대지의 노래>는 여섯 악장으로 이루어진 연가곡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중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시를 개작하여 가사로 삼은 첫 악장에는 “현세의 고통에 대한 술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내가 말러의 이 교향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군 복무 중이었는데, 1악장을 듣고 나서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구절이 있었다. “Dunkel ist das Leben, ist der Tod. (삶도 어둡고, 죽음도 어둡다)” 성급히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 죽음과 피안에서조차 아무런 위안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그 어둠의 시대 속에 낮게 깔린 대지의 신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삶도 어둡고, 죽음도 어둡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세계를 향한 뜻을 이렇게 요약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창1:22,28)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의 유래에 관해 말하면서 이 말을 반복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출1:7) 이는 창세기에서와 같은 원형적 온전함으로는 아닐지라도, 굶이진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역동함을 보여준다.

애굽 제국의 바로는 이 모든 상황이 탐탁지 않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출1:22) 유아 살해.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향한 바로의 반응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움켜쥐려는 바로와 그 손아귀에서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대립은 죽음과 생명, 어둠과 빛이 격돌하는 우주적인 충돌로 비화한다. 오늘 본문이 그리는 열 가지 재앙 이야기에는 “온(모든),” “땅(세상)”이라는 두 단어가 약 50회 이상 사용되는데(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한 통계임), 이는 이 이야기가 지역과 역사를 초월해 반복하는 하나님의 생명 질서와 제국의 반생명 질서 간의 원형적 대립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 살해”로 상징되는 바로의 반생명 정책은 결국 소위 “열 재앙”이라 불

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성서는 이러한 일련의 심판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면서, 그 말미에 이 심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힌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 하리라”(출12:12) 그러므로 “열 재앙”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과정, 곧, “신들의 전쟁”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근대인이 쉽게 빠지는 오류 중 하나로 신과 그 신앙에 관한 일이 “종교”라는 특정 분과 영역에 국한한다는 인식이다. 한마디로, 이 일련의 사건 중심에 “종교 분쟁,”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의 분과로 취급되곤 하는 “종교적”인 어떤 것, 그렇게 수많은 다른 분야와 구분되는 “종교성”이라는 협소한 갈래 안에서의 갈등이 자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일,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현상은 단순히 한 분과 영역에 국한하는 일이 아니다. 한 사회가 섬기는 신은 그 사회의 정신과 질서를 규정한다. 이 말은 역으로도 참인데, 한 사회의 질서와 규범은 그 사회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주조한다. 태양신 라(Ra)와 그의 궁정을 섬기는 애굽은 그 신의 형상을 따라 사회 질서를 이룩한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신”은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을 주조하는 제국 질서이며, 그 정신적 토대의 이름이다. 동시에, 이스라엘 노예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출5:17) 뉘달하며 가혹하게 그 유아를 살해하는 바로의 질서가 그려낸 신의 형상이 바로 “애굽의 모든 신”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바로라는 한 번덕스러운 인간을 도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질서 유지를 위해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유아 살해를 명할 수 있는 “바로” 현상을 가능하게 한 모든 토대, 그가 지배하는 이 가혹한 제국 질서를 주조하는 기저음, 곧, “애굽의 모든 신”을 향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철저하게 뒤집힌 창조의 형상을 취한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부터 빛과 질서로 이행하던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태양신과 바로가 지배하는 빛의 제국을 혼돈과 흑암으로 뒤엎는다. 이곳에서 창세기가 역설한 빛과 질

서, 창조의 하나님은, 마치 거울 속에서 좌우가 뒤바뀌듯, 흑암과 혼돈, 파괴의 하나님으로 “온 땅”(출9:14, 개역개정 “온 천하”) 위에 자기를 드러낸다. 주목할 점은, “열 재앙”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미지는 단순한 심판,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창세기에서 보여준 창조의 이미지를 상기하며 패러디하는 뒤집힌 암흑이요 역창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가 전하는 “열 재앙”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그리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기저텍스트(subtext)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서의 표현 기법은 근대문학 용어로 “복구적 패러디(restorative parody)”라고 부를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기법의 하나인데, 지극히 성스러운 형상을 마치 조롱하듯 천박한 형상 속에서 반복하게 하지만, 결국 그렇게 전락한 세속성을 통해 성스러움이 지녔던 본래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술주정뱅이와 창녀의 야비함과 천박함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대속과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파괴와 암흑으로 거꾸러지는 추락에서 비로소 창조와 빛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열 재앙”이야기는 빛과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어둠과 혼돈을 향해 질주하는 뒤집힌 하나님을 맞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빛이 지닌 심원한 의미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창조는 곧 파괴요, 어둠이 곧 빛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기 위해(출9:16) 우리는 뒤집힌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과 기괴한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가 지닌 유사-신성 때문이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제국이 결국 하나님을 흉내 낸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실을 언어유희를 통해 표현하기도 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강한” 손(출3:19, 6:1)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다수의 구절)과 대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출14:17~18)이 바로의 “완강한” 마음(출7:14; 8:15,32; 9:7; 10:1)과 맞부딪치는 것으로 묘사한다. 재미있게도, 히브리어에서 “강하다”와 “완악하다”는 표현은 모두 “하자크”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영광”과 “완

강하다”도 본래 “무겁다”는 의미를 지닌 “카베드”라는 동일한 어근의 히브리어를 사용한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흉내 내고, 애굽의 완강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칭한다. 이것이 태양신 라의 빛으로 뒤덮인 애굽 제국의 유사-신성이다. 이러한 태양신의 질서, 유사-신성의 제국이 라는 현실 속에서 참된 빛과 질서, 생명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암흑과 혼돈, 그리고 죽음의 하나님이다.

이 뒤집힌 하나님이 애굽 땅 위에 섰을 때, 문명의 젖줄이요 풍요와 혜택의 강물이라 부르던 나일강은 살해된 유아들이 흘린 피를 토해낸다. 이 암흑의 하나님이 애굽 땅을 뒤덮으며 애굽의 장자, 곧 애굽의 사내아이들을 살해할 때, 비로소 소리 없이 강물에 던져진 노예-아이들의 비명이 온 애굽 땅에 울려 퍼진다.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이 사실은 살해된 이들의 핏물이었다는 것, 고요한 제국의 아침에 사실은 찢긴 비명이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괴, 하나님의 암흑, 하나님의 혼돈 속에 드러난 빛의 제국, 애굽의 실체이다.

“빛이 있으라”(창1:3)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종종 충만하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 눈을 가득 채우는 상상을 한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드러낸 장면은 매끄럽고 번쩍이는 황금빛 세상이 아니라 만물을 집어삼킨 거친 “혼돈과 공허”(창1:2)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맞세우며 성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잃어버린 이상 세계를 향한 추모도, 뿌리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단일회적 기원론도 아니다. 창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바로의 제국과 유아 살해의 굴레 안에서 검질기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열 재앙”이야기는 우리의 하나님 상에 도전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뒤집고,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자 우리 사는 세상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 오른다. 맑은 강물에는 피비린내가 서리고, 적막한 아침을 뚫고 대지의 노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Dunkel ist das Leben, ist der Tod. (삶도 어둡고, 죽음도 어둡다)” 피맺힌 땅의 노랫소리와 함께, 비로소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

손경민 전도사

교회 소식

2019년 항존직 선거 마쳐

2019년 항존직 선거가 지난 10월 6일의 1차 선거와 13일의 2차 선거를 거쳐 마무리되었다. 1차 선거에서는 최근 가장 많은 투표자인 1,630명, 2차 선거에서는 1,341명이 투표하여 주님의교회 10년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일꾼을 꼼꼼히 선정했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참여자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출석교인의 약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투표참여율은 여전히 큰 과제라고 보인다.

10월 6일 1차 선거에서는 유효표 1,600표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최재경 권사가 유일한 장로피택자로 선출되었다. 유효표 1,575표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안수집사 피택자는 12명, 유효표 1,584표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권사 피택자는 11명이었다.

이어 10월 13일의 2차 선거에서는 유효표 1,313표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신형섭, 서정하 안수집사가 장로 피택자로 선출되었다. 유효표 1,267표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7명이 안수집사 피택자로, 유효표 1,301표 중 2분의 1 이상 득표한 8명이 권사 피택자로 선출되었다. 총 투표수와 유효표의

차이는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기표, 무효로 인정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두 차례의 선거 결과 최종 선정된 항존직 피택자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화보 15면).

장로 피택자 (3명)

서정하, 신형섭, 최재경

안수집사 피택자 (19명)

구성원, 김성수, 김승노, 김윤수, 김형세, 김희동, 박동진, 박태곤, 배기호, 신재범, 신재은, 유신식, 이성욱, 이정춘, 이철용, 정도일, 현병택, 홍승길, 황영균

권사 피택자 (19명)

김경희K, 김명숙, 김선미, 김성은, 김예경, 김은희D, 김지수, 류혜경, 민연식, 유 경, 윤숙영, 이숙희, 이영숙, 이해련, 이효순, 조선옥, 조정숙, 천옥현, 최은실

함즐함울

사역 간증

더 낮은 자리에서 열심과 충성을

올해 2019년 항존직 공동의회 선거가 무사히 끝나치게 되었습니다. 과정과 결과에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월 16일 최종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매년 치러지는 선거가 있기까지 선거 공고문 게시 준비, 선거인명부 공람, 중직자 추천 투표 등의 수많은 작업으로, 선거과정 자체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주님의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를 비롯한 강석인, 심동욱, 유정식, 조병길, 황용환 장로님과 이은석 목사님께서 선거관리위원으로, 그리고 정유석 팀장과 많은 진행위원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 기도하며 2019년 5월 첫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올해는 장로 3명, 안수집사 19명, 권사 19명이, 중직자 추천투표, 당회 공천투표, 그리고 1,2차 항존직 공동의회 선거의 과정을 통해 피택되었습니다.

1차 항존직 공동의회 선거는 최근 가장 많은 1,630명이 투표해 주셔서, 장로 1명(유효표 1,600의 2/3이상 득표자) 안수집사 12명(유효표 1,575의 1/2이상 득표자), 권사 11명(유효표 1,584의 1/2이상 득표자)이 피택되었으며, 2차 항존직 공동의회 선거에서는 1차 때보다 다소 적은 1,341명이 투표해 주셔서 장로 2명(유효표 1,313의 2/3이상 득표자), 안수집사 7명(유효표 1,267의 1/2이상 득표자), 권사 8명(유효표 1,301의 1/2이상 득표자)이 피택되었습니다. 실제 투표수와 유효표의 차이는,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한두 명만 기표한 투표용지는 개표 참관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최대 기표 인원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더 낮은 자리에서 열심과 충성을, 성도님들께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모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장로 / 2019 항존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교회 소식

역사자료관리부 신설

2019년 9월 1일 역사자료관리부가 신설되었다. 전문위원회인 미디어관리위원회 산하에 속하게 되는 역사자료관리부는 창립 3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주님의교회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현재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이를 전산화하여 교회 역사를 기록 보존함을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지난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교회 창립정신을 더욱 발전, 계승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후세들에게는 교회 역사를 통해 선배들의 신앙여정을 살펴보고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세워나갈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수집할 역사자료는 목회 사역자료, 제직부서 사역자료, 유인물 자료(주

보, 함즐함울 등), 행사(절기행사, 특별행사),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망라한다.

자료 수집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대를 구분, 1~4차로 나누어 단계별로 수집한다.

1차 수집 [1988~2013] : '주님의교회 25년사'를 항목별로 분석-분류하고, 통일된 양식에 의거 정리-보존한다.

2차 수집 [2014~2018] : 25주년~30주년 사이 5년간의 자료를 수집한다.

3차 수집 [2019] : 가장 가까운 2019년도 사역 자료부터 수집한다.

4차 수집 [2020 이후] : 2020년 1월 교육 후, 각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사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료 공개 [2022 예정] : 일정 수준의 자료가 정리되면→교회사 자료 전시회 개최 및 교회사 자료 박물관 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첫 사역으로는 2019년도 사역 자료부서에 공지할 예정으로, 11월 한달간 39명 교역자와 123개 제직부서를 대

상으로 시행되며, 각 분과위원장 및 부서장들은 공통양식의 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역사자료관리부에 제출하게 된다.

함즐함울

섬김과 나눔 소식

섬김과 나눔, 2019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장관 표창 수상



주님의교회 부설기관인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이 지난 10월 10일 2019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적, 물적, 생명, 희망 멘토링 4개 부문의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나눔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나눔 실천사례 홍보 등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포상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나눔단체의 추천과 국민공모 등의 방법으로 훈·포장 및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아 6개월간의 공적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10월 10일 KBS 신관 스튜디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주님의교회 (사)섬김과 나눔은 서울 특별시의 포상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

단체의 현장 실사 및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단법인으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사)섬김과 나눔의 상임이사인 손천숙 장로는 이번에 정부 표창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사회복지(대외 구제) 사역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사)섬김과 나눔은 주님의교회 대외 구제사역을 통해 주님이 명하신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사명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더욱 더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함글함글

섬김과 나눔 소식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 사역 활성화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과 28일에 각 남녀선교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전파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교회의 대외 구제사역 기관인 (사)섬김과 나눔의 지역사회 복지(구제) 사역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남녀선교회의 사역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남녀선교회 사역 활성화 계획은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의 봉사현장이 선교활동의 첫 출발이자 디딤돌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출발하였으므로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 봉사자가 찾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남녀선교회의 사역 활성화 계획은 남녀선교회가 복음전파 사역에 필요한 특별예배, 기도회,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사역활동을 수행하며, 남녀선교회가 주님의교회 대외 구제사역 기관인 (사)섬김과 나눔의 지역사회 복지(구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활동으로 기획된다.

함글함글

남녀선교회 봉사 계획

1. 주님의교회 섬김과 나눔 봉사단 총원 모집

- 일시 : 2019. 10. 20(주일) – 10. 27(주일) 08:30~14:00
- 장소 : 주님의교회 1층 로비
- 모집 : 봉사 사역자 80여명
 - 기존인력 : (사)섬김과 나눔 사회복지(구제) 사역 봉사자 92명(2019. 1 현재)
- 신청자격 :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성인 남녀 교인 (남녀선교회 회원)
- 주최 :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 / (사)섬김과 나눔 공동

2.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개최 불우이웃 지원

- '생명사랑 이웃사랑 음악회' 개최(제 4회)
 - 일시 : 2019. 11. 20(수) 19:30 – 21:00(예정)
 - 장소 :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사회복지시설(5개) 종사자(직원), 정신여자중고등학교 학생, 주님의교회 교인
 - 내용 : 합창곡, 기악독주곡, 독창곡, 고전무용, 워십 등 프로그램 공연
 - 주최 :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 / (사)섬김과 나눔 공동
-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개최 불우이웃 돕기(제 7회)
 - 일시 : 2019.12.15(주일) – 29(주일)
 - (성탄절(12/25) 계기 행사)

- 장소 : 주님의교회 1층 로비
- 대상 : 주님의교회 교인 및 지역사회 주민
- 내용 : '생명살리기 사랑의털모자 전시회' (성탄절트리 전시대 설치) 개최, 사랑의털모자 제작 재료비 및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 모금 지원
- 주최 :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 / (사)섬김과 나눔 공동
- 후원 : 주님의교회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

3. 유관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업 봉사활동 지원

- 유관 사회복지시설(마천종합사회복지관 등) 봉사활동 지원
 - 기간 : 2019년 연중 월 1~2회
 - 대상 : (사)섬김과 나눔 늘푸른대학(1~6여선), 마천종합사회복지관(3~5여선), 소망의집(6여선) 등
 - 내용 : 각 사회복지시설의 급식봉사 등 봉사활동 지원
 - 주최 : 주님의교회 1~6여선교회/ (사)섬김과 나눔 공동
- 동절기 따뜻한 겨울나기 불우이웃 돕기 사업 협력 지원
 - 일시 : 2019. 12월 25일 성탄절 전후
 - 대상 : 생계가 어려운 극빈자, 장애인 등 불우한 이웃
 - 내용 :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용 연탄 및 방한이불 등 지원
 - 협력 : 송파구청 및 동 주민센터
 - 주최 :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 (사)섬김과 나눔 공동
 - 후원 : 주님의교회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

교회 소식

아름다운 부모학교,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 위한 출발선

제2기 부모학교 개강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신6:5~7)”라는 2019년 표어에 발맞추어, 올바른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부모 신앙 교육의 공간인 뷰티풀페어런팅 센터(Beautiful Parenting Center, BPC)가 설립되었고, 지난 5월에 수료한 제1기 아름다운 부모학교에 이어 제2기 아름다운 부모학교가 9월 21일에 개강했다.

아름다운 부모학교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됨을 알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녀의 교육을 가정이 아닌 학교나 학원에 맡기는 이 시대처럼 신앙교육도 주일 교육부서에 맡기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교육부서에서 배우고 부모는 그저 그 시간에 교육부서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가정은 말씀을 함께 읽고 신앙으로 양육하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원래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주일학교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769년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복음주의 성향 성공회 신자이자 신문편집자인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가 주일마다 노동자들의 자녀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이 되었다. 주일학교는 일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아름다운 부모학교는 그 관점을 바꿔주는 시작이 된다.

아름다운 부모학교 과정 10주 동안



들 곧, 부모가 교육을 책임지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만든 교육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할 때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냥 학부모가 아닌 기독교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가정예배와 성품교육, 부모의 정신건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조별 묵상 나눔과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하며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부모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사춘기 아이와의 갈등이 끝나 평온한 가정이 되고, 매일 가정예배로 찬양과 말씀이 나뉘지고, 성경적인 자녀양육의 달인이 되어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모학교 수료는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교육관, 세계관으로 나를, 우리 아이를, 이 땅의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는 출발선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부모학교의 10주는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아름다운 부모학교를 마치더라도 나의 가치관들이, 그리고 내 아이와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삶은 이전과 동일하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이들은 내 마음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예전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부모가 되는 한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함글함글

교회소식 | 늘푸른대학

아름다운 가을을 마음에 담다

늘푸른대학 가을 나들이



10월 8일 화요일 늘푸른대학에서는 학생들과 스태프 230명이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별내 불암산 자락에 있는 산들소리 수목원에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두둥실 뜨고 전날 내린 빗줄기 덕분에 맑고 깨끗한 시야에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에 모처럼 오붓한 산길을 걸으며 꽃을 찾아서 요리조리로 산행의 재미를 더하였다. 아기자기한 산길과 양증맞은 들꽃들이 우리를 뺑긋 반기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말끔히 씻어주듯 바람도 불었다. 어르신들과 스태프들 모두 여유롭게 즐긴 가을 길 행복을 가득 담아 왔다.

함글함글

사역 소식 | 2019 비전트립 보고서 _ 베트남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주지하다시피 베트남 교회는 1975년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도 활동이 금지되다가 2001년에 합법화되었고 폐교되었던 베트남 복음성회(남부총회) 신학교도 2001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 공산체제 하에서의 공인교회가 주는 선입관과 달리 호치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남부총회의 총회장이나 목회자들은 1975년 이후 투옥과 고초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남부총회와 약정을 맺고 총회 소속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장학사업과 역비전트립 등 많은 사역에 협력을 하고 있다. 올해 9월초 베트남 중부의 달랏이라는 곳에서 개최된 신앙사경회도 남부총회의 신학교와 협력하는 사역의 하나이다.

최화평 선교사가 베트남으로 파송된 2011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비전트립이 올해로 9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황바울 목사님과 김낙균 장로님을 인솔자로 하여 김영아, 손정아, 윤금자, 박성희, 유은하, 조원준, 홍완식 성도 등 총 9인이 팀을 이루어 다녀왔다. 7월 22일(월) 새벽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26일(금)에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아침에 귀국을 하였다. 작년까지는 의료팀과 같이 동행을 하여 보건소에서 진료도 하였지만, 올해부터 의료사역은 별도의 기간에 집중하여 행하기로 하고, 여름의 비전트립에서는 집짓기와 송아지 기증을 중심으로 하는 구제사역과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학용품 전달하는 교육지원 사역에 집중하기

로 하였다. 우리 교회의 베트남 선교사역은 남부총회와의 협력으로 수행되고 있고 비전트립은 매년 호치민 근교의 빈농성으로 간다. 그리고 비전트립팀은 매년 남부총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제하고 남부총회 소속의 미자립교회나 후원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3채의 집을 지어주고 송아지를 기증하였다. 건축일을 하는 분들이 집을 건축하면 비전트립팀은 페인트칠로 집짓기의 마무리를 하고, 헌정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으로 마련된 송아지와 선물을 전달한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여러 곳을 방문하여 학용품과 자전거 등을 전달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교회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풍선아트를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함께하였다. 밀알학교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복지관을 방문하여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는 비누 만들기 재료를 전달하고 장애아동들에게도 풍선을 만들어 주고 과자와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선대에서 이루어진 전도와 선교의 덕분이며, 주님으로부터 연유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홍완식 안수집사

사역 소식 | 2019 비전트립 보고서 _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카라콜의 날들



이번 여름 7월 23~31일간 있었던 키르기스스탄의 단기선교팀은 정창화 목사님 포함한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모여 준비했던 구호물품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태권도장 운영에 필요한 도복에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자수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르교회 식구들과 6시간 정도 버스로 달려 도착한 카라콜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인근 지역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른들과 아이들 80명이 모여 “섬김과 나눔”의 주제로 작은 연합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한 가정당 평균 아이들이 5~6명이 되어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식구가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친해지기 위한 서로의 얼굴 그리기로 함께 웃으며, 준비했던 미용사역과 사진사역, 그리고 힐링 마사지 사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워낙 다산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육아에 시달리는 엄마들에게 미용 마스크시트 한 장이 치유의 시간이 되었고, 가족 사진을 찍어 준비한 액자에 넣으니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선물로 준비했던 젤라, 크레용과 색연필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린 아이들 그림에 몽클했습니다.

야간에는 정창화목사님의 말씀을 러시아어로, 다시 키르어로 2명의 통역을 통해 전하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말씀에 목마름 있는 분들이라 작은 펜으로 메모하면서 열심히 듣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또한 서로의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간증하는 시간에는 가정과 직장의 압박과 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의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는 그들의 가정속으로 가정예배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본인의 집을 내놓아 일주일에 한번씩 지역예배 장소로 사용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똑똑굴과 함께 “주나의 모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대로 준비하고 있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방문을 위해 손수 농사지은 첫 수확물인 벌꿀을 담아주시고 테미를란 목사님 댁에서 식탁교제와 함께 기도제목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비슈케크로 와서 태권도 체육관을 방문했는데 한참 경기준비로 바쁜 모습이었으나 은비님의 치과사역지 병원을 방문하여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말씀과 예배로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아직도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껏 큰소리를 찬양할 수 없는 지역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우리들의 선교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 기간동안 우리를 섬겨주신 윤바나바님과 은비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안경희 권사

사역 소식 | 2019 비전트립 보고서 _ 코스타리카

척박하지만 복음이 비옥한 곳



젓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척박하지만 척박하지 않은 복음이 풍부한 코스타리카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먼 곳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

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하고 가지고 온 짐을 사역별로 정리하고 다시 8시간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곳은 정말 먼 곳입니다. 월요일에 출발해서 떠난 지 3일이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서야 겨우 두 다리를 펴고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잠을 청하고 난 후 자연에서 들려주는 새벽 새소리 알람에 일어나 첫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자노깨찰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곳이기도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페인트칠을 시작했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남자들은 페인트 붓을, 여자 성도님들은 이미용 도구를 들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역의 시간이 흘러 어느새 교회는 진한 연녹색으로 칠해졌고 아이들은 머리를 깎은 채 자신의 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팀은 자노깨찰에서 선교사님이 머물고 선교팀들이 머물게 되는 선교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역시 자연이 들려주는 음악을 들으며 일어났습니

다. 사역준비를 마치고 난 후 가려던 교회 대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발과 선물을 주며 머리를 하나 둘씩 깎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깎고 난 후 처음에 가려던 교회에 들려 다시 이미용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섬기는 인디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직접 경험할 때마다 그 복음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또한 먼 곳이지만 금상호 선교사님이 주님의 교회 파송선교사인 것이 후에는 정말 한국선교 역사에 귀한 쓰임이 될 것이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형제, 자매로 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교회를 통해 이미 한 호흡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복음으로 가깝고 척박하나 복음은 비옥한 땅 코스타리카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잘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이은석 목사

사역 소식 | 2019 비전트립 보고서 _ 역비전트립

선교지 청소년 초청 수련회



선교지 청소년 초청 수련회는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가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현지 복음화에 헌신하는 비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련회이다. 2016년에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의 청소년 초청을 시작으로 2017년 베트남, 2018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올해는 베트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 번째로 진행되었다.

금번 참가 청소년들은 베트남 남부 총회 산하 목회자들의 자녀들로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가 참가 대상이었다. 참가한 학생은 베트남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베트남 소수민족 목회자의 자녀들도 5명 참가하였다. 학생 12명과 인솔자 1인 등 총 13인이 참가하였고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수련회 프로그램은 크게 우리나라의 복음화 과정 소개, 비전 심어주기, 문화탐방 및 교우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복음화 과정 소개는 김성운 전도사의 특강, 양화진 선교사 묘역 탐방, 이천 기독교역사박물관 탐방 등으로 구성되었고, 비전 심어주기는 시푸 전도사의 특강과 한양대 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화탐방은 고광중 안수집사의 한국어 강좌, 경복궁 관람, 도자기 만들기 체험, 판타스틱 공연 관람, SBS 방송국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여덟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하여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였다.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 정도 되지만 기독교인은 아직 1~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교회는 베트남 최화평, 김사랑 파송선교사를 후원하며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베트남 복음성회 남부총회의 미자립교회 38인의 목회자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베트남 청년들은 금번 수련회를 통하여 한국에 처음 와 보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발전해왔음이 매우 인상깊었고 자신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였다.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 홈스테이 제공으로 따뜻한 정을 보여준 여러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잘 치르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번에 참가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목회자의 자녀인 Ksor H'Wessi 학생의 간증문으로 글을 맺는다.

“저희들은 많은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양화진 선교사 묘지입니다. 저희들은 외국인 선교사의 하나님의 일을 위한 희생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 희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베트남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선교사님들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김용규 안수집사

사역 소식 | 2019 베트남 신학교수련회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평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9월 2일(월)에서 6일(금)까지 김화수 담임목사님과 강사로 함께 섬겨주신 안중은누리교회 양인순 목사님을 모시고 베트남 달랏에서 진행된 베트남 남부총회 신학생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신학생은 보통 5년 과정으로 교역학 과정이 진행되는데(우리나라의 신학대학원이 학부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3년의 과정을 갖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5년의 기간 중 첫 2년은 호치민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3년차에 베트남 남부총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흩어져 1년간 인턴십의 시간을 갖은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2년을 마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나고 돌아온 신학생 110여명은 모두 3년차로 베트남 남부 전역에 흩어져 실습기간을 보내고 있던 학생들입니다.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잠시나마 한적



한 곳에서 그동안 사역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는 달랏이라는 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달랏은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로 있을 때 개발된 고산지대 휴양도시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랏에서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베트남 기후가 보통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1500미터 고지대의 선선한 기후가 너무 좋아 이

곳으로 휴양을 온다고 합니다.

수련회는 남부총회장 목사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며 겸손하게 있는 자리를 꾸준히 지켜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이튿날부터 담임목사님과 양목사님, 최선교사님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목회론’과 ‘큐티’ 강의 이렇게 두 번을 강의하셨는데, 사역현장에서 신학을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크고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우리교회의 7대 실천미션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있는지에 대

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양목사님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최고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리더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선교사님은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읽어주는 그림성경 원더풀스토리를 소개하고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용 웹콘텐츠 개발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참여했던 모든 신학생들과 총회 관계자님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들이 현지 신학생들에게 잘 심겨져 모든 생명들이 깃들여 쉴 수 있고 다시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겨자씨나무와 같은 하나님나라 공동체가 그들을 통해 베트남 땅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주영 목사



사역 소식

2019 중보기도부 수련회

10월 10일(목)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중보기도 사역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수련회를 가졌다. 빨간 사과가 익어가는 과수원 길을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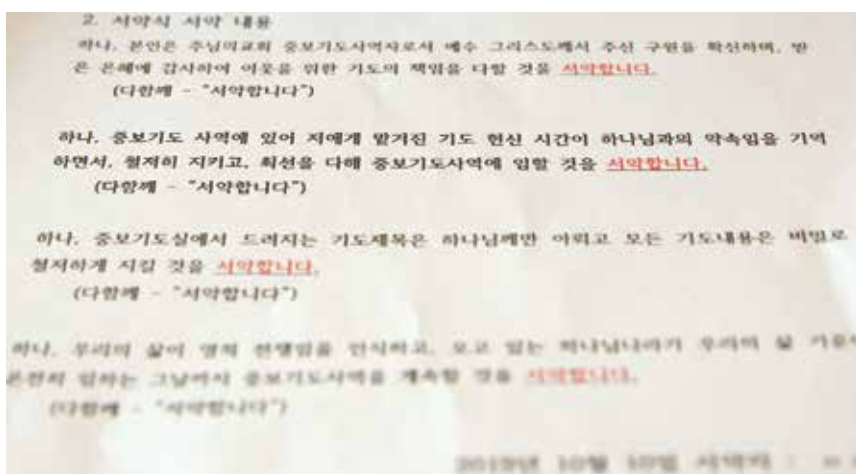
이굽이 지나 단풍이 곧 내려앉을 것만 같은 명지산 자락에 도착하자 누렇게 익어가는 벼와 싱그러운 가을바람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종성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으로 시작된 수련회는 지현호 강사(올리브선교회 공동대표)의 ‘하나님의 자존심 중보기도자’라는 특강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숨은 중보기도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찔림이 있게 하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후에는 정창화 목사가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이어 중보기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 자신의 중보기도생활을 점검해 보고, 오른손을 들고 다 함께 일어서서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것을 서약하였다. 함께 웃고 울었던 간증 순서에서는 김숙연 집사와 황정매 권사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오랜 시간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지 보게 하셨다. 팀모임 자유 시간에는 곳곳에 위치한 기도실과 천로역정 순례길 등을 함께 돌아보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였다.

함글함글



목회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앙 양육

또 한 번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느끼며 여기까지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교회의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목회의 현장은 학습자를 깊이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한 인간을 형성해가는 교육적, 문화적 환경도 함께 이해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자의 상황에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신앙 양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소리 없이 현대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속도감 있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기술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융합의 심포니, 초융합의 시대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창의력과 상상력이 강조되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상력은 융합을 이루어내는 힘,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해내는 힘과 깊은 관련

이 있습니다.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는 상상력을 이미지를 형성하여 새롭게 배열하는 힘으로 정의합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연결, 혹은 융합을 통해 참신한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것이 상상력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융합의 순간, 통합의 순간(unifying moment)에 작용하는 상상력을 세 가지-인식, 공감, 비전의 상상력으로 구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앙 양육을 위한 틀로 제시하고 부서에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구조인 딥러닝을 통하여 계속해서 더 많은 인간의 이미지와 능력을 담아내며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로봇의 등장을 위협적인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폭넓고 깊은 차원에서의 인식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의 변화 속에서 놀이든, 음악이든, 여행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좋아하는 관심사를 탐색하는 것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가

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인식의 상상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넘어선 인간적인 요소들- 따뜻함, 공감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갈수록 인공지능도 정서와 감정을 지니게 될 것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개발한 페퍼라는 인공지능은 사람과 감정을 교감하며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감성 케어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감의 상상력의 차원은 인류 공동체를 넘어서서 AI 공동체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스트모던, 지구화 시대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 신음하는 생태계의 차원까지 공감의 상상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처럼 다른 존재를 폭넓게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감의 상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미래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데 인공지능이 좋은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림을 잘 못그려서 망설여질 때 자신의



화풍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누구도 모방할 수 있는 작품을 창조해 낼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짐에 따라 비전의 상상력을 통해 인간 문화 공동체, 자연 생태계 공동체에 로봇이라는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에 대비하며 함께 평화롭게 공존해 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비전의 상상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식, 공감, 비전의 상상력을 키워가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중심으로 삶의 다차원을 건강하게 통합해 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문은영 목사

부임 인사

낮은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이진희 목사 / EM예배부

샬롬! 주님의교회와 EM예배부를 섬기기 위해 부임한 이진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설레이는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담임목사님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바른 목회를 잘 배워, 늘 낮은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주님의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해피맘 스쿨 1기 개강



2019년 9월 24일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말씀으로 준비하며 행복한 엄마가 되어가는 태교학교인 해피맘스쿨 제 1기가 출범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엄마가 되기를 기대하는 예비엄마들이 모여 말씀으로 태교하고 아름다운 부모로 성장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2019년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2019년 10월 6일의 1차 선거와 13일의 2차 선거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2019년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장로 3명, 안수집사 19명, 권사 19명이 피택되었습니다. 이미 항존직 후보로 피택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 바 있는 이번 피택자들은 소정의 피택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20년 창립기념 주일에 임직되어 여러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묵묵히 낮은 곳에서 헌신할 피택자 여러분을 함께 축하,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가나다 순)

■ 장로



서정하



신형섭



최재경

■ 안수집사



구성원



김성수



김승노



김윤수



김형세



김희동



박동진



박태곤



배기호



신재범



신재은



유신식



이성옥



이정춘



이철용



정도일



현병택



홍승길



황영균

■ 권사



김경희K



김명숙



김선미



김성은



김예경



김은희D



김지수



류혜경



민연식



유 경



윤숙영



이숙희



이영숙



이혜련



이효순



조선옥



조정숙



천옥현



최은실



권예진 아기

2019년 1월 12일생

1.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길
2.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길
3.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아빠: 권혁민 성도 / 엄마: 박은지 성도, 2019년 7월 21일 3부 예배



도혜리 아기

2019년 2월 27일생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2.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소서
3. 건강하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소서

아빠: 도원종 성도 / 엄마: 김신혜 성도, 2019년 9월 8일 3부 예배



하운 아기

2019년 7월 9일생

1.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주를 신뢰함으로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빠: 하성찬 집사 / 엄마: 임사라 성도, 2019년 9월 29일 3부 예배



고연아 아기

2019년 4월 13일생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2.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3.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아빠: 고동현 집사 / 엄마: 유아린 집사, 2019년 10월 13일 2부 예배

2019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 기도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1주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스럽다 (자녀세대의 현실) 박국익 목사	2주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부모세대의 현실) 임경순 목사
3주 그리스도인 부모로 살아가기 (선택과 결단) 박주영 목사	4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내려놓음) 한시영 목사

10/19 10/26 11/2 11/9

토요일 오전 6시 30분 - 8시

장소 지하 사랑나눔실 대상 수험생을 둔 부모, 교사

2019 하반기 교사대학

교사, 그 거룩한 부르심과 실천

일시 10.27, 11.3(주일) 2:00 PM

장소 다목적교육관 5층

대상 주님의교회 전 교사 및 부모(유아송, 유소년송, 청소년송)

1주차 10.27

멘토링의 기술
신용주 실장 (진로와소명연구소)
현 진로와소명연구소 실장
전 한국리더십센터 컨설팅그룹
공공부문 팀장

2주차 11.3

교회학교 교사, 그 거룩한 부르심과 실천
신형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유니온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 박사

알립니다

1. 11월호 큐티책(주님과함께) 판매

일시 : 10월 20, 27(주일)(2주간)

오전 8:30 - 오후 2:00 / 1층 로비 / 가격 : 2,000원

※ 1년 정기구독(13개월) 신청 받습니다.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2. 2019년 교육목회원 하반기 교사대학

일시 / 장소 : 10/27, 11/3(주일) 오후 2:00-4:00 다목적관 5층

주제 : 교사, 그 거룩한 부르심과 실천

강사 : 신용주 실장(진로와소명연구소), 신형섭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대상 : 유아, 유소년, 청소년 교사 및 부모

문의 :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3. 사역 박람회 참여 신청 안내

교회 내 사역팀 소개 및 팀원 모집을 위한 부스 운영(11/17, 24)

박람회 참여를 원하시는 부서는 10/27(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류혜경 집사(010.7700.9361)

4. 2020학년도 대입 수험생 기도회 일정안내

수험생을 위한 부모 / 교사 기도회

10/19~11/9 매주 토요일(4회) 오전 6:30 지하 사랑나눔실

수험생 축복의 시간

11/10(주일) 1부 예배

※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시작 20분 전까지 오셔야 합니다.

수능일 부모기도회

11/14(목) 오전 8:30 - 오후 5:00 하늘비전교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2길 30. 잠실동 302-5)

※ 식사 및 간식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5. 정신여고 '희망직업인과의 만남' 진로멘토 모집

일시 : 11/22(금) 오후 1:00-3:00

방법 : 50분, 2회(10명 내외의 학생들과 강의 및 질의응답)

분야 : 의사디자이너, 법조인(판사, 변호사), 범죄심리학자, 화장품연구원,

3D 애니메이션 제작자, 경찰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